

〈전우치전〉의 여성 재현 방식과 의미

서경희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부교수

목차

- 1 서론
- 2 〈전우치전〉이 재현하는 여성 현실과 인식
 - 2.1 혼자 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질주
 - 2.2 조흥을 위한 여성의 성적 도구화와 외설
 - 2.3 사족 여성의 정조와 오염 가능성
- 3 불임의 전우치와 타자화된 여성
- 4 결론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는 <전우치전>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고 작품에 반영된 여성의 현실과 여성 인식을 추적하고자 했다.

<전우치전>에서는 사회적 보호막이 없는 여성의 성은 누군가의 욕망 충족을 위해 침탈 가능한 것으로 다루며, 유흥 공간의 여성을 남성들의 모임에서 자리의 위용을 과시하는 전시물이자 흥을 돋우는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등장시킨다. 사족 여성의 경우 이들의 정조를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로 두기보다 배우자 남성의 약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인식은 주로 전우치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는 학문적 정통성이나 공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비주류다. 그리고 역모에 이름이 오른 데다가 힘을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의 가계 형성과 계승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가족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전우치가 혼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가 모친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타자화하고 도구화하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그가 문제시하는 여성의 행실은 간통보다는 투기에 있었다. 남성의 성을 통제하는 욕망이 통제를 벗어난 여성의 성보다 더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전우치와 그의 세상인 <전우치전>은 철저히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 인물을 조명했다. 그리고 기존 권력을 조롱하는 과정에 여성 역시 조롱의 도구이자 대상으로 쉽게 활용되었다. 타자화된 여성의 몸, 도구화된 여성의 섹슈얼리티, 약점이 된 여성의 정조는 전우치가 세상을 휘저으며 화려한 재주를 선보이기 위한 재료가 되었다. 그리고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적 인식은 권위와 질서의 전복과 통쾌한 복수 과정에서 저열한 웃음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국문핵심어: 전우치전, 과부, 기녀, 사족 여성, 섹슈얼리티, 수치심, 타자화

1 서론

전우치는 16세기의 실존 인물로 설화와 짧은 기록들 속에서 존재하다가 1847년

경관 37장본이 출간된 이후 <전우치전>이라는 소설 속에서 본격적으로 서사적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는 도술이 뛰어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주변 사건들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소설 속 주인공이 되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스방으로 임의 왕녀’(경관 37장본 11장a)하다가 혹은 ‘구름을 타고 가다가 구버보’(경관 37장본 12장a)고 알게 된 일에 나서서 잘잘못을 따져 바로 잡기 때문에 <전우치전>에는 여러 신분과 처지의 인물들, 온갖 사연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전우치전>에는 여타의 초인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이끌어가는 영웅소설들과 달리, 여성 인물들이 수없이 나오고 이들이 각 일화에서 문제를 드러내거나 재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우치가 맞닥뜨리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사건도 당시 민간 여성의 현실과 그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모습일 터이다.

<전우치전>의 기존 연구¹는 다양한 여성 인물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
- 1 소설 <전우치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소설에 주목한 논의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전우치전> 이본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이본의 계열별 특성을 드러냈고(박일용, 「전우치전과 전우치설화」, 『국어국문학』 제92호, 국어국문학회, 1984, 37-60쪽; 李鉉國, 「〈田再治傳〉의 형성과정과 異本間의 변모양상」, 『문화와 융합』 제7호, 文學과言語硏究會, 1986, 160-161쪽; 문범두, 「〈전우치전〉의 이본 연구-형성과정과 의미를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제18호. 한민족어문학회, 1990, 250-254쪽; 안창수, 「〈전우치전〉으로 살펴본 영웅소설의 변화」, 『韓國文學論叢』 제59호, 한국문학회, 2011, 101-107쪽), 더 나아가 <전우치전>이 대중성을 획득해 나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경판본에서는 환상성이 강조되고 해학성과 관능성이 강화되는 형태로, 구활자본에서는 민중적 영웅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수요를 늘려나갔다고 했다.(서혜은, 「〈전우치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語文學』 제115호, 한국어문학회, 2012.3, 195-224쪽) 그리고 선악 구도에서 벗어난 주인공이 역동적이고 유희적이며 원초적 성격의 환상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소설의 주된 미감으로 평가되었고(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8, WmàCE\$YCE, 2003, 55-81½), <X>X t|O 1 Đ—Đ ü©Xi t CE\$t (Đü öD tÜX” ½T, Ñ l1D èXt —CE D ü öX XÄ| öXää tXOÄ ^ ä.(W\$|, 「〈전우치전〉의 구성과 의미에 대한 재고찰」, 『우리文學硏究』 제48호, 우리문학회, 2015, 163-185쪽) 그리고 <전우치전>의 ‘전우치’는 민중 속에 들어가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모순된 인간이자 불완전한 영웅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보기도 했다.(신효경, 「〈전우치전〉에 나타난 모순의 양상과 지향의식」, 『인문학연구』 제62호 No.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67-93쪽) <전우치전>의 특정 화소나 삽화, 인물군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

두지 않았다. 다만 이 소설이 정절을 지키는 여성들에 대한 남성의 행패를 곳곳에서 보여주어 당시 여성들이 직면한 정절과 훼손이라는 사회적 모순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우치가 다른 문제에서는 인물의 구제에 앞장서면서도 여성을 대할 때는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 사회가 정절을 강요하면서도 훼손의 폭력을 가하는 병리적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했다.²

〈전우치전〉이 ‘전우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 주변 인물들의 사연을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 인물들과의 일화 속에서 전우치의 세계에 투사된 향유층의 여성 인식이 드러나게 된다. 〈전우치전〉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전우치’라는 영웅 서사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무슨 문제에 연루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을 통해 이 소설의 여성 재현 방식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우치전〉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에 주목하여 이들의 존재 방식과 관계 양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인물이 작품 세계 속에 재현되는 양상을 통해서 작품에 반영된 여성의 현실과 소설이 드러내는 여성 인식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민중 영웅적 성격의 전우치를 내세운 〈전우치전〉의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³

펴보면서 민중에 가까운 주인공을 통해 사회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드러낸다고 해석하였고, 전우치가 스승을 얻게 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했으며, 주인공의 조력을 받는 인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독자의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소설로 조명하였다.(송주희, 「〈전우치전〉의 奪財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제92호, 어문연구학회, 2017, 211-244쪽; 홍현성, 「‘스승 얻는 이야기’로 읽는 〈전우치전〉」, 『한국고전연구』 제41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5-66쪽; 송미경, 「〈전우치전〉 속 ‘구원받는 약자’의 결합과 그 의미」, 『語文論集』 제84호, 중앙어문학회, 2020, 215-248쪽) 최근 사적 권력에 대한 향유층의 기대와 불안의 심리가 작품에 투사되는 방식에 주목한 논의가 있었다.(서경희, 「정의감과 전능감의 길항, 기대와 불안의 서사-〈전우치전〉 경판 37장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84호, 열상고전연구회, 2024.10, 141-172쪽).

2 신호경, 앞의 논문, 2023, 79-80쪽.

3 〈전우치전〉이 소설로 확립되어 독자들에게 폭넓게 읽힌 초기본인 경판 37장본을 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야기·책·이야기』(이창현, 보고서, 2003)에 영인 수록된 경판 〈전우치전〉 37장본을 참고한다.

2 <전우치전>이 재현하는 여성 현실과 인식

2.1 혼자 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질주

<전우치전>에서 전우치가 기묘한 술법을 부리게 된 것은 여우의 구슬과 천서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우가 전우치에게 접근할 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1) 운치 고히 녀겨 나아가 보니 그 처지 그져 울거늘 운치 고히 녀겨 나아가 보니 년광이 삼오 이팔은 호고 용모는 옥 갓호여 아릿싸운 티되 남주의 마음을 방탕케 호는지라 ... 그 녀지 강잉 디왈 나는 밍어스의 쌀이 러니 오세의 모친을 일코 계뵈 드러온 후로 날를 부친씨 참쇼호여 죽이 고져 호미 쥬야 설워호여 주결코져 호나 참아 못하고 이갓치 우노라 호거늘 운치 처언을 드르미 가장 긍측히 녀겨 왈 스람의 소성이 유명하니 남주는 부모 유체를 심각호여 슬기를 도모하라 호고 인호여 옥슈를 잡으 되 그 녀지 조금도 닝담호미 업스미 혼연이 교합호여 낭정이 환흠호다가 이욕고 셔로 썬날식 지삼 견권호며 도라가니라 잇튼날 운치 운공씨 나아 갈식 그곳의 그 녀지 나와 불너 왈 니 밍서 이곳의 와 공즈를 기다려 지 오터더니라 호거늘 운치 반겨 손을 잡고 즐기다가 왈 아직 이곳의 이스라 호고 셔당의 나아오니 (2b-3a)

(2) 운치 눈을 드러 본즉 그 녀지 년광이 // 칠은 호디 화려호 용모는 모란이 아춤 이슬를 먹음듯 선연호 티도는 슈양이 춘풍을 못 이기는 듯 호미 가히 장부의 간장을 녹일지라 운치 신히이 황홀호여 왈 남주는 어디 잇관디 이 삼야의 무슴 연고로 왔노뇨 녀지 디왈 첩은 본디 스족부녀로 가군을 싸라 장양티슈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 가속을 다 죽이고 횡장을 일코 첩이 홀노 목숨을 도망호여 나지면 산중의 숨고 밤이면 호호여 고향을 추즈가다가 먼니셔 창외 축영을 바라보고 촌가만 녀겨 왔더니 남주의 글 익는 소리 분명호나 일신이 곤뇌호므로 불계체면호고 드러왔소오니 원컨디 상공은 잔명을 구호시면 타일의 결초보은호리이다 ... 녀지

왈 첩의 집은 경성 남문 밖기오 나흔 십칠이로쇼이다 운치 왈 날과 동갑
 이오 경성이 예서 상계 삼빅여 리니 녀지 엇지 득달허리오 싱이 실노 녀
 녀허노라 …운치 왈 싱이 집이 빈허흐므로 지금가지 취쳐치 못하고 명춘
 과거의 천허으로 등과허거든 혼취홀가 바라더니 금야의 낭즈를 만나미
 또한 연뿐이라 원컨디 이성지합을 미즈 빅년동낙허미 어더허노 녀지 청
 파의 아미를 슈기고 일언불답허니 붓그리는 턱되 촉하의 더욱 절승헌지
 라 … 녀지 침음양구의 왈 첩의 일신이 곤박허나 또한 스문일막이라 출
 하리 죽을지언뎡 엇지 욕을 감시허리오마는 상공 말슴을 듯조오니 감스
 무디라 후일의 원슈를 갑하쥬실진디 존명을 엇지 봉승치 아니허리오 운
 치 이 말을 드르미 마음이 방탕허여 인허여 친합허고 (5a-6a)

여우는 남자의 마음을 녹이고 설레게 하는, 젊고 아름다운 용모로 나타나서 자
 신이 지체있는 집안의 딸이지만 현재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다.
 (1)에서 전우치가 부친의 친구 윤공에게 글을 배우러 가다가 만난 여우는 자신을
 맹어사의 딸이라 소개하며 일찍 모친을 여의고 계모가 자신을 죽이고자 부친에
 게 참소하여 자결하려 한다고 했고, (2)에서 전우치가 과거 공부를 하는 세금사
 에 찾아온 여우는 스스로를 장양태수로 부임하는 사족의 아내라 이르며 길에서
 도적을 만나 가족과 집을 모두 잃어서 다시 멀리 경성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전우치전>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여우’는 결국 전우치에게 보통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부여하게 되지만, 여우의 원래 목적은 전우치를 홀려서 장난을
 치려던 것이었다. 그래서 전우치를 유혹하기 위해 젊고 예쁜 데다가 위기에 처했
 으나 보호할 사람이 없는 여성으로 분했다. 전우치는 윤공의 경고와 세금사에 대
 한 노승의 전언으로 여우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여우가 변장한 여성들의 외
 모를 보고 마음이 들레고 여자들의 말을 듣고 친합했다. 외모뿐 아니라 혼자된
 여자의 처지가 젊은 남자가 쉽게 정을 통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조건이라는 점을
 여우가 이용하는 것이다. 전우치를 만나기 전 세금사와 성남사에서 수많은 사람
 들이 여우의 뒷에 걸려들었다는 것은 이러한 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전우치전>에는 실제 혼자된 처지의 여자들이 여럿 등장하는데 이들도 여우
 가 분한 여성과 같이 주변 남성의 성적 욕망이 폭력적으로 투사되는 존재였다.

(3) 혼 곳의 이르러 본 즉 저른 중이 고은 계집을 다리고 산중으로 드러
가더니 이윽고 그 녀지 남귀 올라 주향하려 혼지라 운치 맛참 촌가의
서 술 스 먹고 산상으로 올라오다가 지경을 보고 놀나 급히 나아가 민거
슬 그르며 슈족을 쥘몰너 회싱하미 연고를 무른디 기네 왈 앓가 지나던
화상은 가군 싱시 친하던 중놈이라 첩이 일즉 과거하여 슈절하더니 금일
은 가군의 도라간 날이라 그 중놈이 와서 달녀여 이로되 제 절에 가서 직
를 올니즈 하고 혼가지로 가물 간청하기로 첩이 신지무의하고 싸라오더
니 그놈이 불측지심을 닌여 이곳의 왓셔 날를 겁칙하여 휘절하미 스라
쓸 디 업기로 주결코져 혼노라 운치 그 녀즈를 위로하여 제 집으로 보니
고 (24b-25a)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여성은 남편을 여인 과부다. 남편의 기일에 남편과 평소
친분이 있고 또 불도를 닦는 수도자가 남편의 재를 지내자고 하여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가 겁탈을 당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기일에 재를 올리러 가는
길이었고 남편의 지인인 데다 세속적 욕망을 끊은 중의 권유로 따라나섰다는 점
에서 정절을 훼손당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속으로 따라간 과부는 자신이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에게 겁탈당하게 되었다.

중에 의해 훼손당한 과부뿐 아니라 전우치의 동학 양봉안이 사모하던 정씨
도, 강림도령이 양봉안의 짝으로 지목한 정씨도 모두 비슷한 처지이다.

(4) 남문안 희현동의서 스는 덩시란 녀즈는 경국지식이오 일즉 과거혼지
라 우리 삼촌 집과 격린하엿스미 담 시이로 우연이 본 후로 스모하는 마
음이 일 // 간절하여 병세 여츠하니 필경 세상이 불구혈가 혼노라 운치
왈 말 잘하는 미파를 보녀 통혼하여 보라 양싱 왈 그 녀지 절형이 특이
하미 성스치 못하고 도로혀 욕을 취혈가 혼노라 (30a-30b)

(5) 강남도령 왈 ... 덩시를 더신혈 스람이 // 스니 일즉 부모를 여회고 혈
// 무의하여 극히 빈한하나 그 마음이 어질고 성이 덩시오 나히 쏘흔 삼
팔이니 ... 강남도령이 환영단을 주며 그 집을 가르치거늘 운치 하직하고

그 집을 찰췌 가니 일간모옥이 퇴락한 곳의 흔 녀지 시름을 씌여 홀노 안
 젓거늘 운치 나아가 달녀여 왈 낭주의 고단흔은 니 이의 아라거니와 낭
 주의 출광이 삼철이 지나도록 출가치 못하여 외로운 경상이 가공흔지라
 니 낭주를 위하여 중미 되고져 호노라 낭지 붓그려 머리를 슈기거늘 운
 치 인하여 환영단을 먹이고 물을 췌으며 진언을 녀하니 의심 업슨 덩가
 녀의 얼골이 된지라 (32a-32b)

양봉안 삼촌의 이웃에 사는 정씨도 노모와 사는 과부이고 강림도령이 정씨를 대
 신해서 양봉안의 짝으로 지목한 정씨도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여성이다. 전우치는
 과부 정씨가 평소 남다른 절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을 위해 정씨를 속여
 혼인을 시키려 하였고, 가족이 없고 집이 가난한 정씨에게는 외롭고 고단한 생활
 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혼인을 제안했다. 여자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없는 조건
 에서 여성 자신의 의지보다 여성에 대한 누군가의 욕망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그 여성이 의지할 곳이 없고 생계가 막막하다면 혼인을 통해 남성의 보호를 받도
 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 여겨졌다.

이처럼 <전우치전>에서는 혼자된 여성의 처지가 유혹자의 조건이 되며, 보
 호자가 없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은 고려되지 않거나 생존 조건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소설의 극적 설정이나 과장된 서사로만 치부할 수 없다. <전우치
 전>이 유통되던 시기 혼자 사는 여성들은 소설보다 더 폭력적인 현실을 살았다.

과부로 지내는 여성이 이웃 사람에게 의해 길에서 겁박을 당하고 혹은 밤중
 에 자신의 집안에서 욕을 본 일이 정려를 내리는 논의 중에 조정에서 거론되었
 으며,⁴ 사대부가 쓴 열녀 기록에도 이웃 남자가 물을 길으러 가는 여성을 추행하
 고 종이 발에 거름을 주던 여성을 겁탈하려 했던 일 등이 남아 있다. 양반가 여성
 이어도 집이 빈한하여 직접 집 밖을 나서야 하는 경우 성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이
 다.⁵ 특히 공인(貢人) 지규식(池圭植)이 일상 경험을 기록한 일기는 과부들이 일상

4 『정조실록』 21년 정사(1797) 5월 18일(정사) 기사; 『정조실록』 21년 정사(1797) 5월 22일(신유) 기사 참조.

5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冊十二 <湖南二烈婦傳>.

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이 죽은 날 이웃집 남자가 수십 명의 무리를 데려와 과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온 과부를 이웃이 집에 데려가 겁탈하기도 했다. 과부 모녀가 교외에 나갔다가 무뢰배에게 희롱을 당하기도 하며, 과부가 욕을 당하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⁶ 『흠흠신서』에도 과부의 뜻을 꺾고 강간을 시도한 사례가 실려있다. 이미 혼인한 남성이 아들을 얻기 위해 과부에게 중매를 넣었으나 거절당하자 밤을 틈타 과부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과부의 오빠가 나서서 실패했다. 남자 형제의 개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남성이 권력을 이용해 과부를 잡아가려 하자 과부가 결국 자결한 사건이다.⁷ 재력이나 든든한 보호자가 없으면 평소 잘 알던 이웃이나 수도자에게 늘 다니던 길, 집 안, 우물가, 밭 등 일상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고 교외로 나가도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 혼자 된 여성에게 안전한 관계나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 여성이 혼인하지 않고 사는 것도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았다. 여성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혼인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인식했다. 집안이 궁핍하여 시집을 가지 못한 것이라면 나라가 나서서 곡식과 옷감을 지급하였고 집안의 재력 문제가 아니라면 가장에게 죄를 묻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들의 가난 구제에 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 혼인 강제를 위한 것이었다. 가난하여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 많으면 화기를 손상하여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다.⁸ 따라서 빈곤하고 가족이 없는 처녀들에게 혼인을 주선하는 것은 민심을 다독이는 일로 여겨졌다.⁹ 의지할 곳 없는 여성에게 혼인은 개인적 사안이 아니며 공동체의 풍속을 위한 일이었다. <전우치전>의 가난한 정씨처럼 환혼단을 먹고 얼굴을 바꿔서라도 혼인하는 것을 여성 자신이 원할 것이라는 짐작, 혹은 원해야만 한다는 기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6 『하재일기(荷齋日記)』 권5, 무술년(1898) 5월 7일; 권6, 기해년(1899) 3월 10일; 권7, 임인년(1902) 1월 12일; 권9, 기유년(1909) 윤2월 13일 참조.

7 정약용, 朴錫武·丁海廉 역주, 『역주 欽欽新書』 3, 현대실학사, 1999, 271-278쪽.

8 정지영, 『질서의 구축과 균열』,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281-282쪽.

9 『중종실록』 25년 경인(1530) 3월 8일(무술); 『영조실록』 6년 경술(1730) 12월 24일(무오) 기사 참조.

이처럼 <전우치전>은 사회적 보호막이 없는 여성의 성은 누군가의 욕망 충족을 위해 침탈 가능한 것으로 다룬다. 소설의 주인공인 전우치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을 대한다. 당대 사회가 정절을 중시했지만 구체적인 현실에는 휘절을 강제하는 폭력이 존재했으며, 혼자된 여성이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었던 것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2.2 조흥을 위한 여성의 성적 도구화와 외설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남성 관료들의 계회(契會)를 그린 그림에는 중심인물인 남성들 외에 모임의 흥을 돋우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한다. 계회도에서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시중을 들고 술을 데우며 술잔을 올리거나 성적 노리개가 되는 기녀를 볼 수 있다.¹⁰ <전우치전>에도 유흥 공간의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 지체 있는 남성들의 모임에서 흥을 돋던 여성들의 형상과 이들에 대한 시선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6) 운치 쪼 흥 곳의 이르니 풍악이 낭즈하고 가성이 분운허거늘 운치 죄의 나아가 네허여 왈 나눈 과긱이러니 제형의 즐기를 구경코져 허노라 제성이 답네허고 서로 통성명헌 후의 운치 눈을 드러 숲퍼본즉 창기 십여 인이 각〃 풍악을 가지고 가스를 희롱허는 곳의 그 중의 쇼싱과 설싱이라 허는 스투미 가장 교만거오허거늘 … 낭인을 향허여 진언을 념허더니 이윽고 낭인 왈 몸이 심히 무겁고 마음이 심히 번난허니 고이허도다 운치 왈 형 등이 방즈허거니와 창기는 불긴허가 허노라 낭인이 노왈 우리 환지 아니여든 엇지 창네 불킨타 허노뇨 운치 쇼왈 낭형은 노치 말고 손을 바지 속이 너허 만져보라 허니 설싱이 〃 말을 뜨고 손으로 만져보다가 쇼싱더러 왈 신랑이 간디 업고 판〃 허니 이 엇진 일이뇨 쇼싱이 보아지라 허거날 싱이 너여 뵈니 과연 아모것도 업스미 쇼싱이 쪼흔 제 하물을 반져본즉 역시 그러헌지라 낭인이 더경 왈 앓가 던형이 우리를 조

10 강명관,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2, 111-276쪽.

롱허더니 과연 이런 변이 잇도다 장차 엇지 허리오 하며 또 창기 중 혼 년
이 쇼문이 간 디 업고 빅 우히 굶기 낫스미 엇지홀 줄 모로거늘 … 운치
알 녀며 말면 주연이 도로 나오리라 제싱과 그년이 깃거하여 만져본즉
의구허미 모다 치하 왈 신선이 강님하시를 모로와 병인이 될 번 허엇느
이다 허더라 (12a-13b)

전우치가 여러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자리에 갔을 때, 연회에는 기녀 십여 명이 악기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녀들은 단지 노래로 자리를 흥겹게 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우치는 잔치에 모인 선비들 가운데 소생과 설생이 교만한 태도를 취하자 이들을 혼쫓내는데, 그 과정에서 기녀들이 담당하는 조흥의 정체가 드러난다. 전우치가 소생과 설생의 성기를 없애고는 이들에게 더 이상 창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서 기녀가 연회에서 성적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 지방의 관기들은 지방관이 여는 연회 등의 공식 행사와 양반들이 사적으로 마련한 잔치에 참가하여 가무 등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자리가 끝나면 남성들의 시침을 드는 역할까지 했던 것을 보면 기예와 노동, 섹슈얼리티를 제공하는 역의 경계가 엄밀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관기와 창녀를 구별하는 풍속이 문란해져 더욱 판별이 어려워지기도 했다.¹¹ <전우치전>에서도 줄곧 창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들이 시침을 드는 존재임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전우치는 설생과 소생을 골탕 먹이는 가운데 기녀에게 남자의 성기를 붙인다. 타자의 성을 욕망하는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기녀에게 성적 욕망의 물적 상징을 부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설생과 소생에 대한 조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지만, 공공연하게 성적 대상으로 자리한 기녀의 섹슈얼리티가 외설적 방식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서울 지방에서 기녀들은 은밀한 신체 부위를 여러 남자들에게 보이는 신고식을 치러야 했으며, ‘점중요강’, 즉 여관의 요강이라 불리며 인격으로

11 서지영, 「조선후기 여악의 민간 활동과 기(妓)·창(娼)의 분화·명명과 분류법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36호, 한국여성사학회, 2022.6, 59-100쪽.

대접받지 못했다.¹² 19세기 후반 조선에 들어왔던 이방인도 남자와 자유로이 어울릴 수 있었던 기녀에 대해 부유층이나 벼슬아치들이 굳이 도덕 관념을 가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¹³ <전우치전>에는 기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반영되어 있다. 기녀의 수치심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전우치전>의 서술자는 기녀와 같이 자신의 성을 통제할 수 없는 여성들을 ‘년’이라는 멸칭으로 비하했다.

남성들은 모임에서 술시중을 들고 흥을 담당하는 여성들을 필요로 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다.

(7) 익일의 모든 선전관이 준총을 타고 나아오며 숲퍼본즉 푸른 차일은 반공의 쇼샹고 칙식 포진은 좌우의 버렸는디 몹은 풍악이며 풍비흔 음식이 가장 변화허더라 제인이 차례로 좌정헌 후의 상을 드려 잔을 날녀 반취허미 운치 왈 금일 청중이 모다 즐길시 무변의 노름이 가장 무미하니 원컨디 전일 친허던 계집을 다려오미 엇더호뇨 제인이 취중의 가장 깃거왈 던조스의 이런 호기 잇는 줄 아지 못호였느니 그디는 지조되로 허라운치 즉시 하인을 다리고 나는다시 남문으로 드러가거늘 제인 왈 던조시 형식 이럿듯 괴특하니 족히 큰 도적이라도 감당허리라 호고 칭찬허더니 오리지 아니하여 운치 무슈흔 계집을 모라와 장 밧긔 두고 다시 큰 상을 드려 즐길시 운치 나아와 왈 청말이 청중 분부를 드러 계집을 다려왔스니 각〃 혼나식 압히 두어 흥을 도〃미 엇더호뇨 제인이 다 좃타 허거늘 운치 문져 혼 계집을 불너 형슈 압히 안치며 왈 너는 씨나지 말고 착실이 슈청하라 호고 차례로 혼나식 안치니 이는 다 선전관의 안히라 모든 선전관이 서로 알싸 두려 하며 아모 말도 못하고 심중의 디로하여 문득 상을 물니고 각〃 말를 너여 타고 급〃히 도라가니 … 김선전이 디로 왈 이거시 벅스정 허참 노름의 창기되어 던가놈을 부동하여 와서 만좌 중의 욕을 뵈니 엇지 스족 부녀의 쇼형이 여초허리오 나는 벼슬도 못하고 문

12 정병설,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147-150쪽.

13 H. N. 알렌, 신복룡 역, 『조선견문기』, 집문당, 1999, 109-110쪽.

호를 망하니 통한호를 엇지 측망호리오 허더니 문득 시비 급보 왈 부인이 썩어난다 허거늘 선전이 노를 그치고 듕히 닉당으로 드러가니 부인이 이러 안즈며 왈 첩이 앓가 잠간 조으더니 흥포입은 지 불문시비하고 첩을 잡아니며 황의 입은 하인이 다라드러 장옷을 쓰이고 말를 턱와 어니 곳으로 가 본즉 날갓튼 부인이 무슈호여 아모리 흘 줄 몰나 허더나 던선전이란 놈이 날를 꼭씩 ○허 상공 압히 안치며 착실이 슈청하라 하고 차례로 한나식 안친 후의 선전관들이 열좌호여 상을 바닷다가 별안간 상공이 노식을 썩여 이려서며 말씨 올라 도라가미 다른 스람드리 안을 도라보지 아니하고 노기 발〃 호여 다 훗터지니 첩도 앓가 계집들과 함기 물니여 방황하다가 썩다르니 남가일몽이라 … 모든 선전관이 불승통분 왈 덕역부도 던운치 놈이 닉조호여 우리 등을 욱을 뵈니 어니 썩 이놈을 죽여 이 한을 설치호리오 허더라 (16a-17b)

전우치는 허참례를 요구하던 선배 선전관에게 화려한 연회를 베풀고 자리가 흥겹지 않으니 여자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자, 평소 전우치를 괴롭히던 선전관들이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우치가 호기롭다 칭찬하기까지 했다. 남성들의 모임에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필요로 하는 것은 평소 남성들 간의 관계가 좋았던 나뻐든 상관없이 모두 동의하는 바였던 것이다. 전우치가 가달산에 염준의 무리를 평정하러 갔을 때도 염준이 미녀들을 세워두고 위용을 화려하게 하거나 잔을 바치게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겠다는 뜻으로 세를 이루어난을 일으키는 장수도 여성들을 자신들의 즐거움뿐 아니라 힘을 과시하는 물질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우치가 염준의 세력을 진압한 뒤 여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보아 이 여성들은 염준의 형세의 크기를 드러내는 소유물로 전시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

그런데 남성들이 잔치에서 소비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

14 “가달산으로 드러가 보니 염준이 엄연히 일산을 밧고 빅총마를 맞시며切的홍상한 미녀를 좌우의 세우고 종즈 빅여 명을 거느려 산헿허더니 … 후원의 드러가 본즉 염준이 황금교의 에 안고 제장을 좌우의 안치고 그 뒤히 전각의셔 미녀 슈빅인이 열좌호여 잔을 밧거늘 … 운치 염준의 닉실의 드러가 미녀 슈빅을 다 노하 각〃 제 집으로 도라보니고”(18b-21a)

다. 앞서 기녀에 대한 전우치의 인식에서 드러났듯이, 여성이 유흥의 자리에서 남성의 흥을 돕는 행위는 여성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치욕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일을 사족의 부녀가 한다면 남편은 벼슬을 못 하게 되고 집안이 망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성들의 유흥과 권세의 전시를 위한 여성의 역할은 욕을 보고 노골적인 조롱을 감수하는 일이며 여성의 주변이 지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자기 집안 여성만 아니라면 이러한 직역을 담당하는 여성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았다.

유흥을 돕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환상은 전우치가 선보인 족자에 노골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8) 흥 곳의 다〃라 본즉 여러 소년이 족조를 가지고 닷토아 보며 칭찬
 왈 이 족조 그림이 텃하 명쾌라 흥거늘 운치 나아가 보니 곳 미인되라 그
 미인이 아회를 안아 희롱하는 형상이로디 입으로 말하는 듯 눈으로 보는
 듯하여 싱기 유동흥거늘 운치 흥 계교를 싱각하고 … 운치 왈 닷게 흥 족
 조 이스니 그디 등은 보라 흥고 쇼미 안호로서 미인도를 닷혀 노흐니 그
 미인이 가장 아름다온디 몸의 녹의 흥상을 닷고 머리의 환관을 씨쓰미
 진짓 텃향국석이오 절디가인이라 제인이 보고 칭찬 왈 이 그림도 싱기
 온전하여 우리 족조와 방불호도다 흥거늘 운치 닷쇼 왈 그디 족조도 조
 타 흥려니와 싱기는 이 족조만 못하니 이 화격을 보라 흥고 족조를 걸며
 가마니 부르되 쥬선낭은 어디잇노뇨 흥니 문득 그 미인이 디답하며 동
 조를 다리고 나오거늘 운치 왈 모든 공적외 술을 부어 드리라 선낭이 디
 답하고 잔의 술을 부어 드리니 운치 문져 마시고 츠레로 제인이 바다 마
 시미 쥬미 가장 감열흔지라 제인이 비쥬를 피흔 후의 선낭이 쥬안을 거
 두어 그림이 되어 드러서니 제성이 디경하여 서로 이로디이 그림은 텃상
 조화도 아니오 몽중희롱도 아니〃 만고의 희한헌 보벼라 흥터니 … 오싱
 이 디취하며 족조를 외당 벽상의 걸고 보니 쥬선낭이 병을 들고 셋거늘
 오싱이 그 고은 티도를 흠모하여 옥슈를 잡아 무릅 우희 안치고 사랑하
 를 이기지 못하여 침석의 나아가고져 혈 즘음의 (27b-29a)

아이를 안은 미인도를 보고 감탄하는 소년들에게 전우치가 내보인 족자는 소년들이 감상하던 그림과 비교하면 여성의 미모와 생동감은 방불하지만 그림 속 여자의 역할에서 차이가 났다. 소년들의 그림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모성을 환기하는 형상이라면, 전우치의 족자 속 주선량은 조흥을 위한 여성의 모습이였다. 요구할 때마다 언제나 족자에서 나와 술을 따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해주는 그림 속 미인은 여성을 유흥의 도구나 대상으로 인식하는 남성, 그리고 남성 문화의 판타지를 잘 보여준다. 소년들은 전우치의 족자에 열광하고 오생이라는 자는 큰돈을 내어 구매하고자 했다. 전우치는 이러한 소년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인격이 거세된 미모의 주선량은 개인이 구매하여 소유하면서 언제나 섹슈얼리티를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가치가 충분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우치전>은 유흥 공간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다. 이들은 연회와 같은 남성들의 모임에서 자리의 위용을 과시하는 전시물이자 흥취를 돕는 성적 착취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유흥의 장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도구라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타의에 의해 몸이 노출되고 섹슈얼리티가 외설적으로 다루어지는 여성들에게 자기 의사나 감정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족자 속의 주선량처럼 인간적 감정과 판단이 몰수된 채 남성이 원하는 모습으로 박제되고 섹슈얼리티가 투명하게 폭로되는 방식으로 성상품화된 여성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¹⁵

2.3 사족 여성의 정조와 오염 가능성

실존 인물 전우치는 시를 잘하고 도술에 능하며 역병에 대응하는 등 사람들을 돕기도 했지만, 부도덕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전우치가 사대부거나 궐에 드나들면서 패륜과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이 많다는 기록이나 전우치가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미모의 부인이 있으면 그 남편으로 변해서 부인을 범했다가 징치를 당하

15 감정의 내러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유흥의 대상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며, 이처럼 포르노그래피적으로 노출되는 대상은 탈심리화, 탈주체화, 탈내면화된 무명의 존재가 된다. 한병철, 이재영 역, 『아름다움의 구원』, 문학과 지성사, 2016, 94-98쪽 참조.

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¹⁶ 애초 전우치가 여성의 정조 관념과 같은 사회적 윤리를 고려하는 인물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우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소설 <전우치전>에 반영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혼자된 여성에 대한 자신의 정욕을 숨기지 않으며, 지인을 위해서라면 상대 여성의 정절 의지는 애써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복할 대상을 꼼짝 못할 궁지에 몰아넣고자 할 때는 여지없이 그 부인의 정조를 건드렸다.

위 (7)에서와 같이 전우치는 허참례를 요구하며 신참을 괴롭히는 선전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아내들을 연회의 자리에 불러온다. 선전관들은 연회에 흥을 돋울 여자들을 부르는 것에 동의하며 전우치를 칭찬하기까지 했으나 자신의 아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연회의 조흥을 위한 여자’와 ‘사족 부녀’는 전혀 다른 존재이며, 특히 자신의 아내가 창기와 같이 잔치에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다. 전우치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중적 인식이었다. 전우치는 선전관들이 스스로 여성들의 동석에 동의했으나 그들의 아내가 술 시중을 드는 것에는 분노하는 모순적 반응을 이끌어내서 선전관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이중성은 혼인한 남성에게 배우자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전관의 부인은 잔치에 참여한 일을 꿈을 꾸는 것으로 기억하며 오히려 담담하게 진술하지만,¹⁷ 선전관은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본 것이며 전우치를 죽여야 한이 풀릴 만한 일이라고 했다. 해당 부인보다 배우자 남성이 이 상황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창기의 일이라 여기는 수청을 자신의 아내가 수행하는 것은 사족으로서 패가망신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

16 정환국, 「전우치(田禹治) 전승의 굴절과 반향」, 『민족문화사연구』 제41호, 민족문화사학회, 2009, 213-239쪽 참조.

17 “선전이 노를 그치고 급히 너당으로 드러가니 부인이 이러 안즈며 왈 첩이 앓가 잠간 조오더니 흥포 입은 지 불문시비하고 첩을 잡아너며 황의 입은 하인이 다라드러 장옷을 쓰이고 말을 퇴와 어니 곳으로 가 본즉 날갓튼 부인이 부슈하여 아모리 흘 줄을 몰나 허더니 댄선전이란 놈이 날를 꼭씩 ●허 상공 압히 안치며 착실이 슈청하라 하고 츠레로 한나식 안친 후의 선전관들이 열좌하여 상을 바닷다가 별안간 상공이 노식의 썩여 이리셔며 말씩 올라 도라가미 다른 스랍드리 안을 도라보지 아니하고 노되 발〃허여 다 훗터지니 첩도 앓가 계집들과 함과 물니여 방황하다가 씨다르니 남가일몽이라”(17a-17b)

성의 접근이 가능한 자리에 나서고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은 배우자 남성의 체모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일이 되었다.

이 때문에 전우치는 역모의 우두머리로 몰린 자신을 죽이고자 한 도승지 왕연희에게 복수를 할 때도 왕연희의 모습을 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부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다.

(9) 운치 구름 속에서 요술을 행하고 몸을 변하여 왕연희 되어 궤문에 나오니 하인 등이 인마를 디령혔다가 되서 왕부로 도라가 바로 님당으로 드러가 부인과 슈작하되 부인과 가닌인은 전혀 모르더니 이적의 왕공이 궤니로서 나와 하인을 츠든즉 혼나토 업는지라 고히 녀겨 동관의 인마를 비러 타고 집의 도라오니 하인들이 문전의 이스미 왕공이 일변 디로하며 곡절을 무른 즉 하인 등 왈 쇼인 등이 앓가 상공을 되셔 앓습거늘 쏘 엇지 상공이 계시리오 하며 면 // 상고하거늘 왕공이 의괴하여 님당으로 드러가니 시비 등이 손뼉을 치며 왈 이 엇진 일이뇨 앓가 우리 상공이 나와 계시거늘 이 엇진 일이뇨 하며 짓거리는지라 왕공이 아모란 줄 모르고 침실노 드러가니 과연 혼 왕공이 부인과 말슴을 낭즈히 하거늘 왕공이 디로디미 왈 너는 엇던 놈이완디 감히 샴부의 드러와 나의 부인과 말를 슈작하느다 하고 노복을 호령하여 썰니 결박하라 하니 운치 왈 너는 우엔놈이완디 니 얼골이 되어 님당의 드러와 나의 부인을 겁탈하여 하니 이런 변괴 어디 이스리오 하며 썰니 모라니치라 한디 (25b-26b)

진짜 왕연희가 집에 돌아와 자신의 모습을 한 자가 먼저 집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내당이었고, 내당에 자신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부인과 말을 나누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처음 뵈은 말이 누가 감히 벼슬아치의 집에 들어와 자신의 아내와 수작하느냐는 것이었다. 전우치도 진짜 왕연희가 내당에 들어온 것을 보고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진짜와 가짜 왕연희가 서로 꾸짖는 말을 통해서 전우치가 왕연희의 모습을 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내당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왕연희의 모습으로 그 부인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접근하여 결국 왕연희를 욱보이려는 전략이다.

이처럼 <전우치전>은 사족 부인의 정조를 그 배우자 남성의 약점으로 활용했다. 타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치심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른 핵심적 규제 장치이다. 기녀의 경우 남성들은 이들의 몸을 노골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몸에 대한 수치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사족 여성의 몸은 독점적 관계만 용납될 뿐 은폐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서 수치의 가능성이 상존했다. 정조는 사족 여성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매너이자 계급적 표식으로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치욕과 수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기녀는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을 준수해야 하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족 여성에게는 정조의 사회적 가치가 강박적으로 작동했다.¹⁸ 따라서 다른 남자에게나 공공연한 자리에 노출되면 선전관이 말한 것처럼 배우자 남성이 사회적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집안이 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족 부녀자의 성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지만, 모두가 예민하게 의식하는 취약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따라서 전우치는 사족 부인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배우자에게 수치를 안기는 약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배우자 남성에 대한 공격을 위해 그 아내의 정숙함을 오염시킨다.

전우치가 선전관과 왕연희의 교만과 권력욕을 교정하고 자신이 당한 일을 되갚아주는 과정에서 아내들은 본인의 의사나 잘잘못과 상관없이 정절을 훼손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 권한과 평판의 책임이 배우자 남성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조를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로 두기보다 배우자 남성의 약점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우치전>의 약탈적 여성 인식이 구체화된다.

18 에리카 L. 존슨 퍼트리샤 모런 편, 손희정 김하현 역, 『여성의 수치심』, 글항아리, 2022, 24-38쪽; 임옥희, 『젠더감정정치』, 여의연, 2016, 165-174쪽 참조.

19 문헌설화에서도 섹슈얼리티 문제가 여성 인물의 수치감은 유발하거나 여성 인물의 주변 인물들에게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은 성적 이슈에 가장 취약하며 수치를 경험하는 여성 인물은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정경민, 「문헌설화에 나타난 수치감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63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4, 183-212쪽 참조.

3 불임의 전우치와 타자화된 여성

〈전우치전〉에서는 사족 부녀의 행실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나 정절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의식하고 있으나, 전우치는 이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인물이 아니며 소설 역시 정절을 실천하는 문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전우치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처음 구제에 나선 사건은 백발노인의 아들 이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었는데, 이가는 왕가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쓴 상황이었다.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0) 우리 동너의 왕가란 사람이 //스되 그 계집의 인물이 고으미 니 주식이 스통혀여 왕닌허더니 그 계집이 음난혀여 또 조가와 통간하다가 왕가의게 들키여 두 놈이 뽕화 셔러 구타홀시 니 주식이 맞춤 갖다가 뽕흙을 말녀 조가를 보닌엇더니 왕개 즉시 죽으미 그 스퉁이 관가의 고히여 살인을 이루니 조가는 양문기의 문각이라 결련이 //셔 버셔나고 내 주식이 살안혀므로 문서를 만드러 죄슈 되엿스미 이갓치 설워호노라
(11a-11b)

전우치는 백발노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은 왕가의 모습으로 양문기 앞에 나타나 조가를 다시 취조하게 만들고, 결국 이가가 누명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왕가는 죽음에 이르고 조가는 살인죄로 형을 받으며 이가도 살인자로 몰려 곤욕을 치르지만 왕가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노인이 음란하다고 지적한 왕가의 아내는 이가, 조가와 사통한 이력이 드러났지만, 〈전우치전〉은 간통한 여성에 대한 인과응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타의 고전소설에서 간통한 여성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와 비교하면, 이 소설이 간통한 여성에게 굳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우치는 강간당해서 휘절하게 된 여성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시하지 않았다. (3)에서처럼 전우치는 어떤 여자가 스스로 목을 매고 죽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살리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 여자가 남편의 지인이었던 중에게 겁탈을 당하여 자결하려던 사정을 알고는 여자를 위로하여 집으로 돌려보냈

다. 자결을 하려던 여자는 훼손을 하였으니 살아서 쓸데없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전우치는 훼손과 생존의 가치를 연결 짓지 않았다. 훼손을 시킨 중은 정치의 대상이지만 훼손당한 여자가 자결로써 정절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두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여자를 달래서 일상에 복귀하도록 했다.

전우치가 평생 살생을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 엄준과 같은 반란의 수괴나 왕연희처럼 사적 복수의 대상도 살려두었다는 점에서 자결하려던 여자를 살린 것이 생존을 우선시하는 그의 원칙에 맞아맞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우치가 여러 사건에서 보여준 여성의 정조와 관련된 태도를 참작하면, 정절 이데올로기라는 폭력에서 여성의 생존과 자유의지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성의 성에 대한 보수적 통제와 인식을 유념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전우치전〉에서 전우치는 자신의 성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다. 애초 전우치는 여우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리답고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접근하자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여우가 분한 여자와 정을 통했다. (1)에서는 전우치가 여자의 정체를 모르고 (2)에서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짐작하고 있지만, 전우치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자신 앞에 있는 여자의 모습과 태도에 마음이 끌리면 여자를 달래서 친합하기에 이른다. 전우치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데 사회적 규범이나 대상의 불안한 정체에 크게 구애되지 않았다.

이러한 전우치의 태도는 앞서 간통을 저지른 왕가의 아내와 강간을 당한 여성에 대한 〈전우치전〉의 형상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정절 이데올로기나 물리적 방식으로 여성의 성을 통제하기보다는 이를 소비와 탐닉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여성 인물들은 유혹자나 성적 도구, 혹은 수치의 몸을 가진 존재로 형상화된다. 〈전우치전〉에서 보호자가 없는 여성은 성적 착취가 가능한 존재로 인식되며, 기녀와 같이 유흥 공간의 여성은 노골적인 성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족 부녀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치욕을 안길 수 있는 취약한 몸으로 등장한다.

작품 속에서 여성들은 상황 인식을 예민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6)에서와 같이 기녀들은 전우치의 장난으로 남자의 성기를 지니게 되자 당황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다행으로 여겼고, (7)에서처럼 선전관의 아내들도 연희의 자리에 나갔던 상황을 꿈으로만 여기며 어리둥절해할 뿐이다. 왕연희의 아내나 과부 정

씨는 외간 남자와 수작하고 궤절의 위기에 놓였으나 전우치의 도술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전우치나 주변 남성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한다는 점에서 족자 속에서 불러낸 주선량과 흡사하다. 탈주체화된 성적 대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전우치전>에서 자신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여성 인물은 전우치가 선보인 주선량 족자를 구매하기로 한 오성의 아내 민씨다.

(11) 문득 문 열니는 곳의 급히 달녀 드러오니 이는 오성의 처 민시라 윈
 닌 민시는 투기의 선봉이오 식음의 디장이미 남의 일을 보아도 칼를 들
 고 닉닷는 성벽이러니 츠야의 오성의 희룡호를 보고 디로하여 선냥을 치
 려홀시 선냥이 발서 그림 화상이 되엇는지라 민시 더욱 분노하여 족조를
 뛰여 씨져바리니 오성이 디경 왈 남의 족조를 스려하고 은츠 천냥의 상
 약호엿거늘 임지 오면 엇지허리오 민시 왈 임즈 오거든 니 맛당이 즐욕
 허리라 하며 셔로 닳토를 마지 아니홀시 맛춤 운치 오거늘 오성이 마즈
 그 스염을 이룬디 운치 듯고 민시를 속이고져 하여 민시를 금스망을 씨
 우니 민시 속은 스람이나 몸은 디망이라 말을 허려 하나 말이 나지 아니
 하고 이러나고져 하되 운신희 길 업는지라 … 민시를 보고 꾸지져 왈 네
 가군을 업슈이 녀겨 포악을 일삼으며 투기를 숭상하여 심지어 남의 족조
 를 찢고 날를 욱호미 그 죄로 금스망을 씨여 돌굽기 너허 고초를 격계 허
 려 허느니 이제 허믈를 고칠진디 금스망을 벗기리라 하니 민시 고기를
 좃거늘 운치 진언을 녀흐니 금스망이 절노 버셔지미 민시 황연이 // 러나
 빅비스레허더라 (29a-30a)

민씨는 투기와 셈이 많으며 남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이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모습은 아니었다. 이처럼 민씨는 부덕에서 한참 어긋나는 성품과 행실이 있던 차, 앞서 (8)에서와 같이 남편이 주선량과 동침하려는 상황을 보고 질투심에 주선량을 향해 포악한 행동을 하고 족자를 판매한 전우치에게 욕을 퍼붓겠다 장담했으며 남편과도 다투었다. 민씨는 남편과의 독점적 관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인물이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용납하지 않고

이를 저지하는 데 물리적 힘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성적 대상화된 인물이 아니라, 남편의 성욕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전우치전>은 이가, 조가와 간통한 왕가의 아내에 대한 어떤 식의 훈계나 처벌을 그리지 않았는데, 투기를 하는 민씨에 대해서는 전우치를 죽이려 했던 왕연희만큼이나 가혹하게 궁지에 몰아넣고 꾸짖었다. <전우치전>이 문제적으로 다루는 여성의 행실은 간통보다는 투기에 있다. 남성의 성을 통제하는 욕망이 통제를 벗어난 여성의 성보다 더 교정해야 할 대상이라 보고 있다.

<전우치전>에는 전우치와 여우가 분한 여자와의 친합, 연희의 서생과 기녀들의 성기가 착종된 일화, 오생과 족자에서 나온 주선랑과의 수작 등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성적 묘사가 이루어진다. 경관 <전우치전>이 장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도 독자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관능적인 내용을 담은 삽화들은 대체로 살아남았다. 이러한 경향을 독자의 취향을 노린 대중화 양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²⁰ 이 소설은 노골적인 몸과 성애에 대한 묘사를 공고한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방편의 하나로 삼고 있다.

전우치는 무능하거나 부조리하거나 부패한 권력을 희화화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기존 질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전우치는 진지하고 엄숙한 대결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보다 상대를 놀리고 속이며 골탕 먹이는 방식으로 상대의 권위를 해체한다. 따라서 <전우치전>은 성에 대한 엄격한 윤리나 통제보다 느슨한 검열과 거리낌 없는 묘사 등을 통해 전우치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아리따운 여자로 분한 여우를 이용해 힘을 얻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조롱의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그 가운데 여성은 탐닉과 약탈의 대상이 되고 비하되며 수치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러한 폭력적 여성 인식은 전우치가 기존 권력에 대항하는 명분 속에서 용인되고 있다.

<전우치전>에서 전우치에게 여성으로서의 가족은 모친이 전부다. (2)에서와 같이 여자로 분한 여우와의 잠자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혼인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대상의 정체성을 간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명분일 뿐이다. 유가적 덕

²⁰ 서혜은, 앞의 논문, 205-208쪽 참조.

목에 충실한 영웅들이 여성과의 결연을 통해 가부장으로서 조상을 승계하고 후손을 이어 유력한 가문으로 거듭나며, 전우치와 같이 부패한 권력을 혼쫓내고 왕을 조롱했던 홍길동도 저도에서 배우자를 얻어 가정을 이루고 이세를 두어 지위를 전하지만, 전우치는 혼인하지 않고 대대로 전할 지위를 얻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혼인은 이세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역』에서 여자의 혼인이 낳고 기름, 즉 사람의 시작이라고 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남녀가 만나 자손을 생산하고 가족의 영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족과 가문의 번영을 꾀하는 데 혼인의 의미가 있었다.²¹ 그러나 전우치는 과거에 오를만한 제도권의 학문도 쌓았으나 동시에 호정과 천서, 여우의 도움으로 도술을 익힌 존재이다. 그는 학문적 정통성이나 공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세상에 이름을 알린 비주류다. 게다가 전우치는 역모에 이름이 오른 데다가 힘을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의 가계 형성과 계승은 불가능했다.

세상에 후세를 남길 전망이 없는 전우치에게 여성은 가족 구성원이 되어 후세를 생산하고 가문의 명예와 수치를 함께 할 가능성이 배제된 존재다. 즉 여성은 철저히 타자화된 존재로 집 밖에 남게 된다. 비혼과 불임의 전우치에게 여성은 실제적 존재보다는 성애의 대상, 탐닉과 희롱의 도구, 오염시킬 수 있는 약점으로 인식되었다. <전우치전>의 세계도 전우치의 입장에서, 즉 철저히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 인물을 조명했다. 그리고 기존 권력을 조롱하는 과정에 여성 역시 조롱의 도구이자 대상으로 쉽게 활용되었다.

4 결론

<전우치전>에서 전우치에게 가장 존중받는 인물은 모친이다. 모친 최씨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 딸로 전우치의 나이 십세가 되었을 때 남편을 여의었다. 이후 전우치는 모친을 모시는 데 도리를 다했다. 과거에 나가 장원을 하고 돌아와 모친을 기쁘게 하며 바깥에서 보고들은 일이나 큰 임무를 띠었을 때 모친에게 고하고 모친의 경계를 들었다. 우치는 농업에 힘써 모친을 봉양하고 여우로부

21 이숙인, 『유교와 여성, 근대를 만나다』, 모시는 사람들, 2024, 179-205쪽 참조.

터 기이한 재주를 얻은 뒤로는 모친을 잘 모시기 위해 왕과 조정 대신들을 속여 황금들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모친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전우치는 자신의 생존 이유를 모친 봉양에서 찾았다. 전우치가 세상을 희롱하다가 강림도령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강림도령은 노모의 정상을 생각하여 아직 살려둔다고 하였고, 서화담에게 혼쫓이 날 때도 “쇼싱의 노모 잇스오니 원 션싱은 잔명을 빌니쇼셔”(36b)라고 하여 모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속세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말미를 얻었다.

이처럼 <전우치전>에서 모친 최씨는 여타의 여성인물과 재현 방식이 다르다. 전우치에게 모친은 존중받는 인격이며 생존의 질을 책임져야 할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우치가 가족의 범위 내에서 사고하고 규범적으로 상대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리고 효를 행한다는 것은 전우치가 속세의 삶을 이어갈 명분이 되었다.

조선이라는 봉건사회에서 절대권력인 왕조차도 전우치의 도술 앞에서 기롱당하는 신세가 되고 절의가 높은 과부도 궤절의 위기에 놓이며 열의 실천이 무산될 뻔하지만, 전우치는 부모에 대한 효에 관해선 작품 내내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전우치에게 충이나 열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가치이지만 효는 절대적 윤리인 것이다. 전우치가 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부친의 장례에 효를 다한 것처럼, 모친 생전에 자식으로서 예를 다해 봉양했다. 고전소설에서 효는 종종 다른 윤리에 앞선다. 의(義)보다 효를 우선시하여 효를 위해서라면 불의를 선택하고, 충보다 절대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소설에서 효를 절대화하는 것은 본성을 지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가문중심주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²² 전우치가 효를 절대 가치에 둔다는 것은 보수적 규범에서 벗어난 그 역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족/가문중심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전우치가 혼인을 하

22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55-184쪽; 신태수, 「〈이계룡전〉에 나타난 효담론의 구도」, 『한민족어문학』 제70호, 한민족어문학회, 2015.8, 167-200쪽.

지 않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족 지향적 윤리를 따르는 전우치에게 모친을 제외하면, 더 이상 집 안의 여성, 가족으로서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의 집안을 이어갈 후손을 낳을 여성, 자신의 후손으로부터 존중받을 여성, 절대적 윤리적 관계로 묶일 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효 이외의 가치는 전우치에게 모두 저항과 전복의 대상이다. <전우치전>에서 전우치는 자신보다 재주가 높지 않은 인물들의 권위를 허물어버리고 희화화하며 비판하고 복수했다. 전우치의 정의에 따라 응징의 대상이 된 상대뿐 아니라 집 밖의 여성들도 탐닉과 희롱의 대상이 되었고 약탈의 가능성 위에 놓였다. 이들은 권력을 가지지 않았고 전우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일도 없었지만 안전할 수 없었다. 타자화된 여성의 몸, 도구화된 여성의 섹슈얼리티, 약점이 된 여성의 정조는 전우치가 세상을 휘저으며 화려한 재주를 선보이기 위한 재료가 되었다. 그리고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적 인식은 권위와 질서의 전복과 통쾌한 복수 과정에서 저열한 웃음을 유발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전우치전> 경판 37장본(이창헌, 『이야기·책·이야기』, 보고사, 2003. 315-386쪽).

『정조실록』 21년 정사(1797) 5월 18일(정사); 22일(신유) 기사.

『중종실록』 25년 경인(1530) 3월 8일(무술) 기사.

『영조실록』 6년 경술(1730) 12월 24일(무오) 기사.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冊十二 <湖南二烈婦傳>.

지규식, 『하재일기(荷齋日記)』 권5, 무술년(1898) 5월 7일; 권6, 기해년(1899) 3월 10일; 권7, 임인년(1902) 1월 12일; 권9, 기유년(1909) 윤2월 13일.

단행본

H. N. 알렌, 신복룡 역, 『조선견문기』, 집문당, 1999, 109-110쪽.

강명관,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2, 111-276쪽.

- 에리카 L. 존슨 퍼트리샤 모런 편, 손희정 김하현 역, 『여성의 수치심』, 글항아리, 2022, 24-38쪽.
- 이숙인, 『유교와 여성, 근대를 만나다』, 모시는 사람들, 2024. 179-205쪽.
- 임옥희, 『젠더감정정치』, 여의연, 2016, 165-174쪽.
- 정병설, 『조선 여성의 일생』, 글항아리, 2010, 147-150쪽.
- 정약용, 朴錫武·丁海廉 역주, 『역주 欽欽新書』 3, 현대실학사, 1999, 271-278쪽.
- 정지영, 『질서의 구축과 균열』,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5, 281-282쪽.
- 한병철, 이재영 역, 『아름다움의 구원』, 문학과 지성사, 2016, 94-98쪽.

논문

- 문범두, 「〈전우치전〉의 이본 연구-형성과정과 의미를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제18호, 한민족어문학회, 1990, 250-254쪽.
- 박일용, 「전우치전과 전우치설화」, 『국어국문학』 제92호, 국어국문학회, 1984, 37-60쪽.
- 서경희, 「정의감과 전능감의 길항, 기대와 불안의 서사-〈전우치전〉 경판 37장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84호, 열상고전연구회, 2024.10, 141-172쪽.
- 서지영, 「조선후기 여악의 민간 활동과 기(妓)·창(娼)의 분화-명명과 분류법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36호, 한국여성사학회, 2022.6, 59-100쪽.
- 서혜은, 「〈전우치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語文學』 제115호, 한국어문학회, 2012.3, 195-224쪽.
- 송미경, 「〈전우치전〉 속 ‘구원받는 약자’의 결함과 그 의미」, 『語文論集』 제84호, 중앙어문학회, 2020, 215-248쪽.
- 송주희, 「〈전우치전〉의 奪財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제92호, 어문연구학회, 2017, 211-244쪽.
- 신태수, 「〈이계룡전〉에 나타난 효담론의 구도」, 『한민족어문학』 제70호, 한민족어문학회, 2015.8, 167-200쪽.
- 신희경, 「〈전우치전〉에 나타난 모순의 양상과 지향의식」, 『인문학연구』 제62호 No.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67-93쪽.

- 안창수, 「〈전우치전〉으로 살펴본 영웅소설의 변화」, 『韓國文學論叢』 제59호, 한국문학회, 2011, 101-107쪽.
- 李鉉國, 「〈田禹治傳〉의 형성과정과 異本間의 변모양상」, 『문화와 융합』 제7호, 文學과言語研究會, 1986, 160-161쪽.
- 정경민, 「문헌설화에 나타난 수치감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63호,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04, 183-212쪽.
- 정환국, 「전우치(田禹治) 전승의 굴절과 반향」, 『민족문화사연구』 제41호, 민족문화사학회, 2009, 213-239쪽.
-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8, Wm CE\$YCE, 2003, 55-81½.
- _____,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55-184쪽.
- 최윤희, 「〈전우치전〉의 구성과 의미에 대한 재고찰」, 『우리文學研究』 제48호, 우리문학회, 2015, 163-185쪽.
- 홍현성, 「‘스승 얻는 이야기’로 읽는 〈전우치전〉」, 『한국고전연구』 제41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5-66쪽.

Abstract

Method of representing women in *Jeon Woochi-Jeon* and its meaning

Seo, Kyung-hee

(Hanshin University, Peace and Liberal Arts College,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characters in “Jeon Woochi-Jeon.” It aims to reveal the reality of women reflected in the work and to trace the perception of women that “Jeon Woochi-Jeon” conveys. In the narrative, women’s sexuality, lacking social protection, is portrayed as something that can be exploited to satisfy someone’s desires. Women in entertainment spaces are depicted as objects displayed to enhance the prestige of male gatherings and as targets of sexual exploitation to heighten amusement. For women of noble families, their chastity is seen not as a social ethical duty but as a weakness to be exploited by their husbands.

The perception of such women is primarily revealed through Jeon Woo-chi, an unconventional figure who made a name for himself with his abilities despite lacking academic legitimacy or official status. Because he was involved in rebellion and perceived as someone who needed to be controlled by power,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form and sustain a lineage. The fact that Jeon Woo-chi, who could not escape a family-centered perspective, had no marriage prospects became a backdrop for objectifying and instrumentalizing all women except his mother. Therefore, he focused more on jealousy than adultery and took issue with women's actions. He regarded the need to correct men's desire to control sexuality as a problem, rather than the unchecked sexuality of women.

Jeon Woochi and his world in "Jeon Woochi-Jeon" thoroughly illuminate female characters from a male perspective. In the process of mocking existing power, women also became easily utilized as tools and targets of ridicule. Objectified women's bodies, instrumentalized female sexuality, and chastity as a weakness became materials for Jeon Woochi to showcase his dazzling talents in his adventures. Violent perceptions of female sexuality serve as the fodder for base laughter during the subversion of authority and order and the process of exhilarating revenge.

Key words: *Jeon Woochi-Jeon*, Widow, Courtesan, noble women, Sexuality, Shame, Othering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4.

게재확정 / 2024.12.08.